

여고생 교복 재킷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축성 재킷과 비신축성 재킷의 비교-

A Study on Wearing Sensations and Satisfaction of High School Girls Uniforms' Jacket - A Comparison between Jacket of Stretch- and Nonstretch-woven Fabric -

김점해 · 이영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Kim, Jeam Hae · Lee, Young Ju
Dept.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ung Unu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earing sensation and satisfaction of high school girls winter uniforms' jacket. The subject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599 high school girls attending four different schools. The fabric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of stretch and non-stretch woven fabr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high school girls showed body image distortion that she recognized herself as fatter than her real body type. Especially, this was severe in the slim body type.
2. In the aspect of the satisfaction for uniforms' jacket made with stretch fabric and non-stretch woven fabric. the elastic fabric was more satisfied than the non-stretch one because its width and length was shorter and fitter than non-stretch one.
3. When they wore the school uniform jacket, the wearing sensation of one made with stretch and non-stretch woven fabr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rms hole when raising hands, front bust when carrying backpack on their back, backs while studying at desks, the upper arms and the elbows.
4. As for the alteration of school uniform jacket, the non-stretch woven fabric was appeared to be altered more than the stretch one.

Key words : wearing sensations, high school girls, uniforms' jacket, stretch, satisfaction.

I. 서 론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으로서의 정체 인식, 즉 청소년 집단에 대한 연대 의식 및 소속감(또래집단)을 부여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질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자아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므로 이시기의 정체감의 표현인 외모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의복과 외모 등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강조하여 집단적 정체성과 결속력을 표현하고 있다.

고생은 만15-17세로 신체적으로는 성장후기이고 심리적으로는 사춘기 후기적 특성을 지니며 다른 연령집단과

신체적, 심리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여고생들은 의복을 동료와의 동조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또한, 의복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표현과 주체 의식 등을 확립하려 하므로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큰 시기라 할 수 있다 (윤경자, 2000).

김혜경(1994)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체형은 중학생이나 성인여성과는 다른 체형적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 소은(2001)의 연구에 의하면 여고생은 몸무게에 불만이 가장 크며, 여고생의 60% 이상이 실제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매체나 언론, 연예인들의 바디이미지가 마른체형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모방심리나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Young Ju
Tel : 051-620-4667 Fax : 051-6123-5248
E-mail : Young99@star.kyungsung.ac.kr

중·고생 시기에 착용하는 교복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생다운 행동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교복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지금, 교복은 편안함보다는 불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유행에 맞지 않은 의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최근 의복이 더욱 개성화 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면서 교복 역시 색상과 무늬, 디자인이 다양해졌으며, 교복의 제작과 구입방법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민경혜(2002)의 연구에서는 교복에 대해 전체적인 면, 디자인 면, 색상 면, 소재면 모두 만족도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의 맞춤새, 디자인의 불만족, 또래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해 교복 변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복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동조성의 강조에서 각자의 개성이나 현재의 유행,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교복을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여주는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교복은 고교생들이 하루의 절반정도(8-10시간 이상)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여고생들을 위한 아름답고 기능적인 교복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교복 제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재연구가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민경혜(2002)의 연구에 의하면 여고생들의 대부분이 신축성 교복을 원하며, 형태안정성을 제외한 활동성, 촉감, 전체적 착용감등 모든 경우에서 신축성 소재 교복이 현행 소재 교복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신축성 소재는 쾌적한 착용감과 의복형태의 기능성, 신체의 굴곡을 나타내주는 실루엣을 추구하는 경향을 만족시킬 있어 남성복과 여성복에 있어서 신축성 소재의 요구가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허지혜, 1997) 김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신축성소재 자체의 특성인 신장성으로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신장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에 적용되는 여유분의 최소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인체 실루엣과의 적합성과 동작 적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복의 만족도(이상희, 1996; 이소은, 2001), 디자인면(박영애, 1997; 윤현정, 2002), 교복변형(이혜경, 1999; 이소은, 2001; 황진숙, 2002), 치수체계 및 맞춤새(원경혜, 1999; 김덕하, 2000)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 실제 의복 착용감(권수애, 1998; 최종명·김희숙, 2000; 민경혜, 2002)과 기

능성(최보가 1976; 김춘식, 1981)을 고려한 교복연구는 대부분 하복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동복 교복 재킷의 착용감을 연구 하였다. 여고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축성 소재와 비신축성 소재의 동복 교복 재킷을 통하여 각 부위의 만족도와 동작 시 착용감을 비교 분석하여 여고생들에게 착용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복 교복 재킷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이상체형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신축성 교복 재킷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셋째, 신축성 교복 재킷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동작 시 교복 재킷 착용감을 분석한다.

넷째, 신축성 교복 재킷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교복 재킷 변형과 변형방법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신축성 소재의 동복 교복재킷을 착용하는 경북 구미의 실업계고등학교의 여학생 1개교(면스판;Cotton/Polyester/Spandex=33/65/2), 대구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이며(울스판;Wool/Polyester/Spandex=80/16/4), 비신축성 소재의 동복 교복재킷을 착용하고 있는 마산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Wool/Polyester=50/50), 창원외의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1개교(Wool/Polyester=50/50)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3년 8월 13일 예비설문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수정한 후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총 620부를 배부하여 605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599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이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 1. 설문 대상 학생 분포

학 년	빈 도	백분율
1	127	21.2%
2	456	76.1%
3	16	2.7%
합계	599	100.0 %

표 2.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교차분석

인지체형	계측치수에 의한 체형분류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마른 체형	81 (53.1%)	6 (2.2%)	1 (4.3%)
보통 체형	148 (64.1%)	209 (71.4%)	2 (8.7%)
비만 체형	2 (0.9%)	55 (20.4%)	20 (87.0%)
합 계	231(100.0%)	270(100.0%)	23(100.0%)
χ^2	215.69***		

*P<0.05, **P<0.01, ***P<0.001

2. 연구방법

1) 체형 분석

체형분류는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1997)에 따라 키와 몸무게를 중심으로 'Rohrer지수=몸무게(kg)/키³(cm)×10⁵을 적용하여 1.19이하 ; 마른체형, 1.20~1.50 ; 보통체형, 1.51이상 ;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

2) 인지체형과 이상체형

인지체형과 이상체형은 ①마른체형 ②보통체형 ③비만체형으로 중 선택하게 하도록 하였다.

3) 재킷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재킷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선행연구(한진이,1998)와 연구자가 구미·대구·마산·창원의 해당학생들과 각 해당학교의 교복업체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한 후 예비설문을 거쳐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동작시 재킷 착용감

동작시 재킷 착용감은 학생들을 직접 면담하여 등학교

시 가방을 매었을 때와 책상, 의자에서 공부할 때의 상반신 동작을 중심으로 관찰한 후, 예비 설문을 거쳐 재킷 각 부위에 해당되는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방법은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너무 조이고 (당기고) 많이 불편함'을 1점, '약간 조이고(당기고) 조금 불편함'을 2점, '보통이다'를 3점, '조금 편하다'를 4점, '아주 편하다'를 5점으로 평가하였다.

5) 재킷변형 부위

학생들의 재킷 불만 부위와 교복 업체의 교복 변형 의뢰 실태를 조사한 후 많이 변형되어 지고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win 10.0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이상체형의 분석에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고, 교복 재킷의 각 부위별 만족도에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동작시 교복 재킷의 착용감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교복 재킷의 변형에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3.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의 교차분석

이상체형	계측치수에 의한 체형분류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마른 체형	100 (43.3%)	146 (53.7%)	5 (20.8%)
보통 체형	131 (56.7%)	126 (46.3%)	19 (79.2%)
합 계	231 (100.0%)	270 (100.0%)	23 (100.0%)
χ^2	12.64*		

*P<0.05, **P<0.01, ***P<0.001

Ⅲ. 결과 및 고찰

1. 실제 체형과 인지체형의 교차분석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실제체형에서 '마른체형'은 231명, '보통체형'은 270명, '비만체형'은 23명으로 분류되었다. '보통체형'도 많지만 '마른체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의 '마른체형'은 자신이 '보통체형'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고, 실제체형의 '보통체형'은 자신을 '보통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비만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20.4%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의 '비만체형'은 자신을 '비만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여고생은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신체 왜곡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마른 체형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경숙(2002), 홍은경(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여고생들 자신이 신체적으로는 비만하지 않으나 체형의식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실제보다 더 뚱뚱한 것으로 인식하는 신체이미지 왜곡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여고생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 시키게 되고,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사람이 60%가 넘을 (이소은, 2001) 정도로 체형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이는 여대생의 저체중군 53.8%, 정상체중군 60.5%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보고(박혜순, 1997)에 비교하여 여고생이 여대생보다 더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며 신체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여고생들에게 의복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에 따라 최대한의 보완과 장점을 살려 교복을 선택, 착용할 필요가 있다.

또, 여고생의 이상적 체형은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초등학생과 대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마른 체형'을 선호하게 나타나는(김재숙·이미숙, 2001) 연구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 남녀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TV 매체나 언론들, 연예인들의 바디이미지는 '마른 체형'으로 변해가 있으며 이상형의 기준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에 날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하면서 모방심리가 강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각 부위별 만족도

<표4>, <표5>, <표6>, <표7>은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부위별 재킷 만족도이다.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재킷 만족도에서는 재킷의 품의 여유, 허리둘레의 여유, 재킷길이, 어깨길이, 소매길이, 소매부리너비, 허리선의 위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를 살펴보면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품여유에서 '약간 헐렁하다'와 '헐렁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24.9%, 비신축성 재킷은 40.1%로 신축성 재킷이 여유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허리둘레의 여유에서 '약간 헐렁하다'와 '헐렁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26.4%, 비신축성 재킷은 38.4%로 나타나 신축성 재킷이 더 피트하게 나타났다. 소매통의 너비의 여유는 '잘 맞는다'가 신축성 재킷이 62.2%, 비신축성 재킷은 51.3%이고 '약간 헐렁하다'와 '헐렁하다'는 신축성 재킷이 25.0%, 비신축성 재킷은 34.6%로 나타나 신축성 재킷이 비신축성 재킷보다 잘 맞거나 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업체 면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격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복업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똑 같은 사이즈 스펙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신축성 재킷과 비신축성 재킷의 사이즈도 똑 같이 적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표4>의 결과는 같은 사이즈에서 신축성 재킷이 비신축성 재킷보다 더 피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비신축성 재킷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신체 성장률이 완만하고 성숙한 신체의 라인을 살린 교복이 필요한 여고생들에게 교복업체들은 치수 체계의 부적합성을 개선하고 또, 소재에 따른 재킷의 각 부위별 여유를 재설정하여 여고생의 체형에 맞는 실루엣을 제시한다면 재킷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5>는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길이, 어깨길이, 소매길이, 소매부리너비 만족도에 관한 결과이다. 재킷길이는 '적당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61.4%, 비신축성 재킷은 50.9%로 나타났으며, '약간 길다'와 '너무 길다'가 신축성 재킷은 22.3%, 비신축성 재킷은 37.1%로 나타났다. 어깨길이는 '적당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69.0%, 비신축성 재킷은 56.9%로 나타났으며, '약간 길다'가 신축성 재킷은 23.4%, 비신축성 재킷은 31.3%로 나타났다.

소매길이는 '적당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60.9%, 비신축성 재킷은 58.4%로 나타났으며, '약간 길다'가 신축성 재킷은 19.8%, 비신축성 재킷은 26.3%, '약간 짧다'가 신축성

표 4.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품, 허리둘레여유, 소매통너비 만족도의 교차분석

빈도(%)

교복재킷부위		신축성 재킷	비신축성 재킷	χ^2
품	①헐렁하다	11 (5.6)	46 (11.6)	18.76*** df = 4
	②약간 헐렁하다	38 (19.3)	113 (28.5)	
	③잘 맞는다	104 (52.8)	168 (42.3)	
	④약간 조인다	43 (21.8)	60 (15.1)	
	⑤너무 조인다	1 (0.5)	10 (2.5)	
	합 계	197(100.0)	397(100.0)	
허리 둘레 여유	①헐렁하다	6 (3.0)	35 (8.8)	12.45* df = 4
	②약간 헐렁하다	46 (23.4)	118 (29.6)	
	③잘 맞는다	117 (59.4)	199 (50.0)	
	④약간 조인다	24 (12.2)	43 (10.8)	
	⑤너무 조인다	4 (2.0)	3 (0.5)	
	합 계	197 (100.0)	398(100.0)	
소매통 너비	①헐렁하다	6 (3.1)	32 (8.0)	9.36 df = 4
	②약간 헐렁하다	43 (21.9)	106 (26.6)	
	③잘 맞는다	122 (62.2)	204 (51.3)	
	④약간 조인다	24 (12.2)	53 (13.3)	
	⑤너무 조인다	1 (0.5)	3 (0.8)	
	합 계	196(100.0)	398(100.0)	

*P<0.05, **P<0.01, ***P<0.001

재킷에 17.8%로 나타났다. 소매부리 너비는 '적당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70.1%, 비신축성 재킷은 60.8%로 나타났다.

신축성 재킷의 경우 재킷길이, 어깨길이, 소매길이는 비신축성 재킷보다 짧게 평가되었으며, 소매부리 너비는 신축성 재킷이 비신축성 재킷보다 좁게 평가되었다. 이는 허지혜(1997)의 연구에서 신축성 소재 상의의 옷의 길이는 가슴, 허리, 배 부분의 신장율에 의해 짧아지고, 어깨 길이의 경우 거의 모든 신축성 소재에서 목 쪽으로 당겨 올라감으로 길이가 짧아져 여유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소재의 교복 재킷이 똑 같은 치수로 제작됨으로 신축성 소재가 길이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교복 업체와의 면담에서 여고생들의 교복은 상·하를 모두 피트하고 길이도 짧게 입으려는 경향에서 상·하를 피트하게 입으려는 경향은 같지만, 스커트길이는 이전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으로 바뀌고, 상의는 더욱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윤현정(2002)의 연구에서 최근의 교복이 기성복의 유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의견과 일치하기도 한다. 요즘 유행하는 신세대 스타일은 허리가 피트한 짧은 재킷과 피트한 청바지, 또 어깨와 허리가 꼭 맞는 가죽 재킷, 블랙레깅스나 1cm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몸에 완벽하게 달라붙는 스키니 팬츠나 스커트가 인기

있으며 몸매를 드러내는 피트한 디자인의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는 추세다. 따라서 신축성 재킷이 유행에 민감한 여고생들에게 유행에 맞게 인식되는 것 같다.

그러나 두 소재 모두 재킷의 길이와 어깨길이, 소매길이는 대체로 '적당하다'와 '길다'의 답이 많고, 소매부리 너비는 적당하거나 넓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몸에 좀더 피트면서 체형에 맞게 입으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 상의가 짧아지면서 소매길이는 맞거나 약간 짧아지며 소매부리는 좁게 입으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6>는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허리선의 위치, 첫 단추 위치 칼라너비의 만족도의 결과이다. 재킷의 허리선의 위치가 신축성 재킷은 '적당하다'가 80.1%로 만족도가 아주 높는데 이것은 신축성 소재의 특징이 폭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길이 방향이 줄어드는 특징으로 인하여 폭 방향의 신장과 더불어 길이 방향의 수축이 일어나 허리선의 위치가 비신축성 재킷에 비해 위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비신축성 재킷은 67.9%로 나타났으며 '낮다'는 의견도 24.0%로 나타났다. 첫 단추의 위치는 '적당하다'가 신축성 재킷은 76.1%, 비신축성 재킷은 63.2%로 나타났으며 '낮다'는 의견은 신축성 재킷은

표 5.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재킷의 길이, 어깨 길이, 소매길이, 소매부리너비 만족도의 교차분석

빈도(%)

교복재킷부위		신축성 재킷	비신축성 재킷	χ^2
재킷 길이	①너무 길다	2 (1.0)	27 (6.8)	17.75** df = 4
	②약간 길다	42 (21.3)	121 (30.3)	
	③적당하다	121 (61.4)	203 (50.9)	
	④약간 짧다	31 (15.7)	45 (11.3)	
	⑤너무 짧다	1 (0.5)	3 (0.8)	
	합 계	197 (100.0)	339 (100.0)	
어깨 길이	①너무 길다	0 (0.0)	29 (7.3)	24.72*** df = 4
	②약간 길다	46 (23.4)	125 (31.3)	
	③적당하다	136 (69.0)	227 (56.9)	
	④약간 짧다	15 (7.6)	16 (4.0)	
	⑤너무 짧다	0 (0.0)	2 (0.5)	
	합 계	197 (100.0)	399 (100.0)	
소매 길이	①너무 길다	0 (0.0)	20 (3.4)	21.81*** df = 4
	②약간 길다	39 (19.8)	105 (26.3)	
	③적당하다	120 (60.9)	233 (58.4)	
	④약간 짧다	35 (17.8)	40 (10.0)	
	⑤너무 짧다	3 (1.5)	1 (0.3)	
	합 계	197 (100.0)	399 (100.0)	
소매 부리 너비	①너무 넓다	1 (0.5)	18 (4.5)	10.36* df = 3
	②약간 넓다	45 (22.8)	115 (28.9)	
	③적당하다	138 (70.1)	242 (60.8)	
	④약간 좁다	13 (6.6)	23 (5.8)	
	합 계	197 (100.0)	398 (100.0)	

*P < 0.05, **P < 0.01, ***P < 0.001

12.7%, 비신축성 재킷은 25.2%로 나타났다. 이는 <표4>와 <표5>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킷의 품이 크고 재킷의 길이가 길다고 인식한 비신축성 재킷에서는 재킷이 피트하고 짧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허리선의 위치와 컷 단추의 위치도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 이는 여림이 높아짐으로 칼라의 너비는 약간 좁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축성 재킷의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비신축성 재킷에 비해 재킷의 칼라너비를 더 넓다고 평가되었다.

신축성 재킷과 비신축성 재킷의 전체적인 만족도 비교 결과는 신축성 교복 재킷이 비신축성 교복 재킷보다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3.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동작시 교복 재킷 착용감에 따른 차이검증

<표7>은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동작시 교복 재킷 착용감을 나타낸 것이다.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진동 부위, 가방을 매었을 때 앞가슴부위,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 등부위, 위팔 부위, 팔꿈치 부위에서 소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착용감에서 평가 방법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너무 조이고(당기고) 많이 불편함'을 1점, '약간 조이고(당기고) 조금 불편함'을 2점, '보통이다'를 3점, '조금 편하다'를 4점, '아주 편하다'를 5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표7>에서는 3점인 '보통이다'보다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현재착용하고 있는 교복이 동작에 따라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소재의 착용감 평가에서 신축성 재킷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신축성 재킷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착용감이 낮아

표 6.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허리선위치, 첫 단추 위치, 칼라너비 만족도의 교차분석

빈도(%)

교복재킷부위		신축성 재킷	비신축성 재킷	χ^2
허리선 위치	①너무 낮다	0 (0.0)	11 (2.8)	14.26** df = 4
	②약간 낮다	25 (12.8)	84 (21.2)	
	③적당하다	157 (80.1)	269 (67.9)	
	④약간 높다	14 (7.1)	30 (7.6)	
	⑤너무 높다	0 (0.0)	2 (0.5)	
	합계	196 (100.0)	396 (100.0)	
첫 단추 위치	①너무 높이 달려있다	0 (0.0)	4 (1.0)	15.37** df = 4
	②약간 높이 달려있다	22 (11.2)	42 (10.7)	
	③적당하다	150 (76.1)	249 (63.2)	
	④약간 낮게 달려있다	20 (10.2)	72 (18.3)	
	⑤너무 낮게 달려있다	5 (2.5)	27 (6.9)	
	합계	197 (100.0)	394 (100.0)	
칼라 너비	①너무 넓다	3 (1.5)	7 (1.8)	7.22 df = 3
	②약간 넓다	39 (19.8)	47 (11.8)	
	③적당하다	147 (74.6)	330 (83.1)	
	④약간 좁다	8 (4.1)	13 (3.3)	
	합계	197 (100.0)	397 (100.0)	

*P < 0.05, **P < 0.01, ***P < 0.001

표 7.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동작시 교복 재킷 착용감에 따른 차이검증

동 작	신축성 재킷		비신축성재킷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진동부위	2.59	0.96	2.39	0.77	7.84**	
앞으로 숙였을 때 등길이	2.54	0.83	2.47	0.77	1.12	
가방을 매었을 때	앞가슴부위	2.66	0.74	2.79	0.70	4.66*
	칼라부위	3.01	0.59	2.97	0.57	0.66
	등부위	2.96	0.69	2.95	0.65	0.12
	어깨부위	2.91	0.73	2.88	0.67	0.36
	허리부위	3.03	0.69	3.00	0.65	0.28
	위팔부위	2.88	0.70	2.81	0.69	1.28
	등길이	2.98	0.66	2.98	0.61	0.02
책상 · 의자 에서 공부할 때	앞가슴부위	2.76	0.75	2.78	0.67	0.14
	칼라부위	3.04	0.62	3.01	1.61	0.08
	등부위	2.88	0.77	2.76	0.64	4.00*
	어깨부위	2.89	0.77	2.77	0.65	3.80
	허리부위	2.95	0.78	2.85	0.64	2.54
	위팔부위	2.84	0.75	2.68	0.67	7.04**
	등길이	2.93	0.71	2.89	0.58	0.64
팔꿈치부위	2.88	0.81	2.69	0.68	9.34**	

*P < 0.05, **P < 0.01, ***P < 0.001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학생과 동일한 사이즈 스펙에 의한 패턴사용으로 인해 여고생의 체형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패턴 설계와 신축성 특성을 고려한 여유량 설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고생의 신체적 특징과 신축성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신축성 재킷은 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진동부위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의 등길이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가장 착용감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가방을 매었을 때와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의 앞가슴 부위는 비신축성 재킷보다 만족도가 낮아 더 불편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신축성 재킷의 앞가슴 부위의 여유량 설정과 패턴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

비신축성 재킷은 신축성 재킷에 비해 가방을 매었을 때와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의 앞가슴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만족도가 떨어져 불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진동부위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의 등길이,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 팔꿈치 부위와 위팔 부위의 착용감이 낮아 더 많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진이(1998)의 연구에서 신축성 소재 의복 착용 시 둘째의 경우 상의는 소매진동, 팔꿈치, 등부위 순으로 불편한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앞에서 살펴본 듯이 비신축성 재킷이 신축성 재킷에 비해 더 헐렁하고 길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따라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킷의 일부 부위의 형태는 편안함을 주기 위한 여유분을 적게 주도록 변형해야 하며, 나머지 부위에서는 인체의 동작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신축성을 주어야 한다. 이는 신축성 소재의 신장율에 따라 패턴에 적용할 여유량 설정이 달라져야 하며, 인체 각 부위에 따라서도 여유량의 설정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변형

<표8>은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변형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표8>를 보면 동복 교복 재킷을 '변형한 적이 있다'가 신축성 재킷이 23.7%이고, 비신축성 재킷은 44.2%로 나타나 비신축성 재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동복 교복 재킷 만족도와 착용감 만족도의 결과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비신축성 재킷에서 변형이 많이 나타났다. 변형방법은 둘째항목의 품, 허리둘레의 여유, 소매통과 길이항목의 재킷길이와 어깨 길이, 허리선의 위치에서 '줄었다'는 의견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표 8.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변형

변형유무	빈도(%)		
	신축성	비신축성	합 계
있다	47 (23.7)	174 (44.2)	221 (37.3)
없다	151 (76.3)	220 (55.8)	371 (62.7)
합계	198(100.0)	394(100.0)	592(100.0)
χ^2	23.50***		

*P<0.05, **P<0.01, ***P<0.001

황진숙·안명화·용유진·유승연(2002)의 연구에서 여고생은 남고생에 비해 상의 품을 좁게, 상의 소매를 짧게, 상의 어깨를 좁게 변형하였고, 남고생도 역시 상의 자켓의 품을 좁게 하고 길이를 짧게 변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날씬하고 키가 커보이기 위한 교복변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혜경(1999)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이 블라우스(하복)에서 가장 많이 변형하는 곳은 '블라우스 옆선을 줄인다'가 74.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옆선을 줄여 신체에 피트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교복변형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몸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형태로 교복을 변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이인자, 1992), 전체적으로 교복의 너비, 둘째 및 길이를 줄여 짧고 타이트하게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권숙희·김혜정, 2002)

이혜경(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변형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중 '각자의 개성이다'와 '교복도 유행에 맞춰 고쳐 입어야 한다'는 교복변형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다'와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는 교복 변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활동하기에 편하다면 고쳐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은(200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은 '심미성'요인을, 남학생은 '기능성'요인을 중심으로 교복변형을 하여 패션화 하였다.

이러한 여고생의 교복변형이 기능성보다는 심미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작 시 착용감이 떨어진다. 따라서 인체 운동에 따른 동작을 제한하지 않고, 외관적으로도 미적인교복 설계를 위하여 부위별 기능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선택된 소재의 특성을 배려한 패턴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소재에 따른 교복 재킷 디자인 연구와 신축성 소재 교복 재킷의 여유량에 따른 패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여고생의 동복 교복 재킷에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제체형에서 '마른체형'은 44%, '보통체형'은 51.5%, '비만체형'은 4.4%로 분류되었다. '보통체형'도 많지만 '마른체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의 '마른체형'은 자신이 '보통체형'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고, 실제체형의 '보통체형'은 자신을 '보통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비만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20.4%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의 '비만체형'은 자신을 '비만체형'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여고생은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신체 왜곡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마른 체형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각 부위별 만족도에서는 신축성 재킷은 재킷의 품, 허리둘레, 소매통의 여유에서 비신축성 재킷보다 여유가 적어 피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길이, 어깨길이, 소매길이, 소매부리의 너비는 신축성 재킷이 비신축성 재킷보다 '적당하거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의 허리선의 위치는 신축성 재킷은 '적당하다'가 80.1%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비신축성 재킷은 '적당하거나 낮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동작시 교복 재킷 착용감에서는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진동부위, 가방을 매었을 때 앞가슴부위,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 등부위, 위팔 부위, 팔꿈치 부위에서 소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착용감에서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재킷이 동작에 따라 대체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재킷은 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진동 부위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의 등길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가장 착용감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가방을 매었을 때와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의 앞가슴 부위는 비신축성 재킷보다 만족도가 낮아 더 불편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신축성 소재의 앞가슴 부위의 여유량 설정과 패턴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

비신축성 재킷은 신축성 재킷에 비해 가방을 매었을 때와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의 앞가슴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만족도가 떨어져 불편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진동 부위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의 등길이, 책상·의자에서 공부할 때 팔꿈치 부위와 위팔부위의 착용감이 낮아 더 많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축성과 비신축성 교복 재킷의 변형 유/무에서는 '변형한 적이 있다'가 신축성 재킷이 23.7%이고, 비신축성 재킷이 44.2%로 나타나 비신축성 재킷의 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방법은 둘째항목의 품, 허리둘레의 여유, 소매통과 길이항목의 재킷길이와 어깨 길이, 허리선의 위치에서 '줄었다'는 의견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고생들은 유행에 민감하여 피트하면서도 편하고 아름다운 교복을 착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높이려고 하였다. 여고생들의 교복재킷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신축성 소재의 교복 재킷이 필요하며, 비신축성 소재의 교복 재킷과는 다른 사이즈 스펙과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교복 재킷에 대한 착용감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착용감, 여고생, 교복 재킷, 신축성, 만족도.

참 고 문 헌

1. 권수애(1998). 여고생 통학복의 착용감과 생리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2), 81-91.
2. 권숙희·김혜정(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401-413.
3. 김덕하(2000). 성장률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선영(2000). 스트레치소재의 길과 바지원형 개발과 인체 측정본으로의 활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춘식(1981). 여고생 교복의 동작 기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혜경·권숙희·서추연(1994). 여고생의 체형분석에 의한 인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1), 130-139.
7. 박영애(1997).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박혜순·이현옥·송정자(1997). 일부 도시지역 여대생들의 신체상과 섭식장애 및 영양 섭취양상.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505-514.
9. 민경혜(2002). 신축성에 따른 여고생 교복의 착용감에

-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윤경자(2000).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소은(2001). 남녀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상희(1996).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윤현정(2002).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혜경(1999). 교복 변형 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원경해(1999). 여자중학생이 체형특성과 교복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인자(1992). 교복착용 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85-96.
 17. 전경숙(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3), 75-86.
 18. 최보가·이영숙(1976). 여고생 교복상의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4), 5-19.
 19. 최종명·김희숙(2000). 여고생 하복의 착용만족도 및 하복용 직물의 쾌적성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11), 105-114.
 20. 허지혜(1997). 니트의 신축성에 따른 상의의 패턴 설계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한진이(1998). 신축성 소재 셔츠 블라우스의 여유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홍은경·박선훈·박혜순·신영선(1997). 일부 도시 여중고생들의 신체상에 대한인지와 체중조절 행태. 대한가정학회지, 16(11), 714-721.
 23. 황진숙·안명화·용유진(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 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23.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1997). 국립기술품질원.
 24. 김재숙·이미숙(2001).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 회지, 25(5), 957-968.
 25. 文化女子大學 被服構成學 研究室 編著(1993). 『被服構成學』, 文化出版局, 東京.
 26. 柳澤澄子 外1명(1996). 『着裝の科學』.
 27. 三吉滿智子·西澤文惠(1989). ベソツパターソの運動機能性について—まとし て後中心線 の變化について. 文化女子大學研究紀要 20集. 別

(2003. 12. 09 접수; 2004. 02. 09 채택)